

2025년 경기도 청년 예술인 네트워킹 프로젝트 <공공작전> 최종 심의평

2025. 08. 18.

심의위원장

문해주

[성명]

심의위원

김상미

[성명]

심의위원

이성형

[성명]

심의위원

정진세

[성명]

[인]

2025년 경기도 청년 예술인 네트워킹 프로젝트 <공공작전> 최종 심의평

2025년 경기도 청년 예술인 네트워킹 프로젝트 <공공작전>은 ‘경기도’라는 광역 문화권 안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공동의 예술적 목표 아래 협업을 시도하고 지역과 장르를 넘어 실질적인 예술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단순한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넘어, 작업공유, 피드백, 동료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작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예술 교류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년 예술인 네트워킹 프로젝트에는 ‘공공작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이는 공감과 공생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에서 지원이력이 있는 예술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이후를 도모하자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나의 예술과 상대의 예술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심의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어필하였다. 단순 조력자에서부터, 동시대 예술 이슈를 논할 수 있는 대화상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동료, 함께 작업구상을 할 수 있는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업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에 크게 차등을 두지 않고, 예술가 저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필요를 존중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자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리고 있는 예술가, 동료에 대한 만남과 과정에 대한 존중이 절실한 창작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체로 자신의 작업세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현재 단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과 조력을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그러했다.

젊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협업과 창작 그리고 경기도라는 키워드에 대해 진실하게 설명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 사업의 의의가 더욱 조명될 수 있었다. 예술에 대한 명분이나 추상적 대의보다도, 연결된 작업에 대한 절실함과 동료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2025. 8. 18.

심의위원 김상미, 문해주, 이성형, 정진세